

통계로 본 서울의 혼인·이혼 현황

[e-서울통계 82호]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최근 만혼, 비혼 현상과 더불어 재혼, 이혼 등 혼인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배우 가구는 줄고, 미혼 및 이혼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1993~2013년) 서울의 혼인 및 이혼의 변화양상 및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고,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화 전망을 분석하였음.
- 주로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혼인 및 이혼 통계,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가구추계 등임. 이들 자료를 '혼인현황, 이혼현황, 가구주의 혼인상태'로 정리하여 '통계로 본 서울 혼인·이혼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서울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 결과는 혼인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혼인건수는 미혼·사별·이혼한 인구 중에서 한해동안 일어난 사건인데 비해, 이혼건수는 이전에 혼인한 모든 유배우자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단순히 한해동안의 혼인건수에 대한 이혼건수로 계산한 수치를 현재 혼인중인 사람이 이혼한 비율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특정연도 이혼 건수를 혼인 건수로 나눈 수치는 이혼율이 아니며 특히 “혼인 몇 쌍 중 몇 쌍이 이혼”과 같이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가구관련 통계는 추계가구, 총조사가구, 주민등록세대가 있고, 통계의 포괄 범위,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이용에 유의바람.

자료설명

○ (2013 혼인 및 이혼통계) 통계청

- 조사목적 : 인구규모와 구조의 변동요인인 혼인 및 이혼 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초자료 :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1.1.~2013.12.31일까지 전국 읍·면사무소 및 시·구청(재외 국민은 재외 공관에 신고한 혼인 및 이혼신고서의 신고내용
- 작성근거 : 통계법 제 17조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호, 인구동향조사)
- 작성시점 : 매년 12월 31일 기준

○ (2010 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 통계청

- 조사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 제공, 각종 가구관련 경향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조사기간 : 2010. 10. 22. ~11. 15. (25일간), 조사기준 시점 : 2010. 11. 1. 0시 현재
- 조사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본문의 1995년, 201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며,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 (2010~2035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 작성목적 : 가구의 양적·질적 변화 정보는 각종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유용함. 최근 가족 분화 및 해체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구의 규모나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어, 이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장래가구추계가 필요하게 됨.
- 활용자료 : ① 기준가구 작성, 장래가구추계 및 가구구성비 추정 : 199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② 장래 가구추계 대상인구 추계 : 2011 장래인구추계(2010~2060)
③ 장래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 인구동태자료 및 생명표(1990~2010)
- 작성대상기간/시점 : 2010~2035년(25년간 : 매년 7월1일 기준)
※ 본문의 2013년^e, 2030년^e 가구통계는 장래가구추계 결과 활용, e는 추정치임.

○ (2013 사회조사)통계청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작성방법 : 본문의 내용은 만13세이상 서울시민 약 4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전국은 17,66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 조사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5. 11. ~ 5. 26.(16일)
- 조사주기 : 1년(매년)

목 차

[요 약]	1
1. 혼인현황	2
1-1) 혼인건수	2
1-2) 종류별(초혼·재혼) 혼인	3
1-3) 남성 연령별 혼인	4
1-4) 여성 연령별 혼인	5
1-5)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6
2. 이혼현황	7
2-1) 이혼건수	7
2-2) 이혼사유	8
2-3) 남성 연령별 이혼	9
2-4) 여성 연령별 이혼	10
2-5) 이혼부부의 혼인지속기간	11
2-6) 미성년 자녀수별 이혼	12
3.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	13
4. 가구주 혼인상태	14
4-1) 가구주 혼인상태 변화	15
4-2) 미혼 가구주	16
4-3) 이혼 가구주	17

I . 요약

- **(혼인현황) 혼인 줄고, 초혼 늦어지는 추세로 미혼 증가 및 만혼화 뚜렷**
 - (혼인건수) 1993년 10만3,511건에서 2013년 6만8,819건으로 20년 새 33.5%(34,692건) 감소
 - ▶ 2013년 혼인 중 남녀 모두 초혼이 84.9%(58,399건), 재혼은 15.1%(10,405건) 차지
 - (남성 연령별 혼인) 남성 주 혼인 연령층은 2003년부터 30대가 20대 남성보다 많아지기 시작.
 - ▶ 남성혼인 중 20대는 20년 새 52,408건 감소(68,550건→16,142건), 30대는 13,066건 증가(30,299건→43,365건)
 - ▶ 남성 평균 초혼연령은 1993년 28.5세에서 2013년 32.6세로 20년 새 4.1세 상승
 - (여성 연령별 혼인) 여성 혼인 연령층은 2013년 처음으로 30대(47.0%) 여성이 20대(43.4%)를 추월함.
 - ▶ 여성혼인 중 20대는 20년 새 50,321건 감소(80,646건→30,325건), 30대 21,911건 증가(10,873건→32,784건)
 - ▶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1993년 25.7세에서 2013년 30.4세로 20년 새 4.7세 상승
 - (초혼부부 연령차) 초혼부부 중 여자 연상 또는 동갑 비율 1993년 18.7%에서 2013년 31.3%로 증가

- **(이혼현황) 2003년 정점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2만건 이상 발생, 황혼이혼 여전히 증가 추세**
 - (이혼건수) 1993년 14,548건에서 2003년 32,499건으로 정점 도달, 이후 2013년 20,126건으로 감소
 - (이혼사유) 2013년 이혼부부의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47.9%, 가족문제 16.1%, 경제문제 12.7% 등
 - (남성 연령별 이혼) 남성 평균 이혼연령은 1993년 38.4세에서 2013년 47.4세로 20년 새 9.0세 상승
 - ▶ 남성이혼 중 50대는 지난 20년 새 4.4배 증가(1,220건→5,405건), 60세이상은 9.0배 증가(261건→2,348건)
 - (여성 연령별 이혼) 여성 평균 이혼연령은 1993년 34.8세에서 2013년 44.2세로 20년 새 9.4세 상승
 - ▶ 여성이혼 중 50대는 지난 20년 새 7.4배 증가(585건→4,350건), 60세이상은 13.9배 증가(97건→1,352건)
 - (이혼부부 혼인지속기간) 2013년 이혼당시 전체 이혼 중 혼인지속기간 20년이상된 비중이 31.8%로 가장 높아
 - ▶ 2009년까지는 혼인지속기간 4년이하 이혼이 가장 큰 비중이었으나, 2010년부터 20년이상 비중이 가장 많음
 - (미성년 자녀수별 이혼) 이혼당시 미성년자녀가 없는 부부 이혼비중은 1993년 33.4%에서 2013년 52.9%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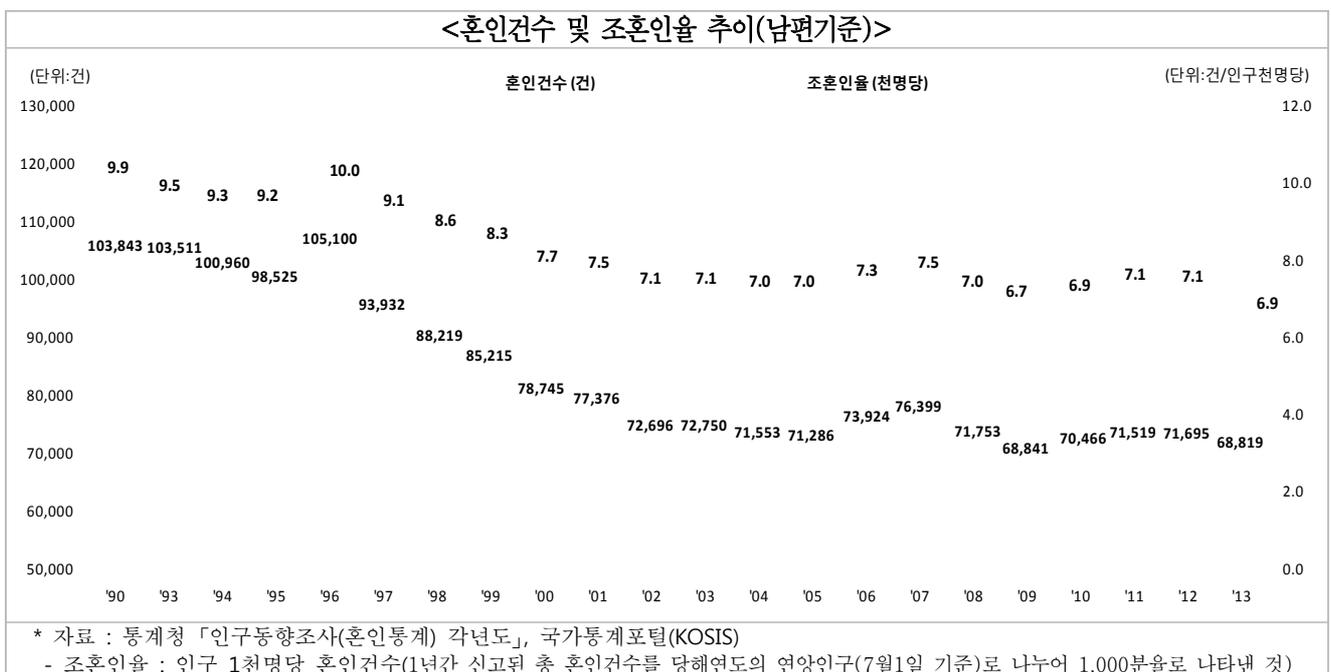
-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가구 줄고, 미혼·이혼 가구주 크게 증가할 전망**
 - (가구주 혼인상태 변화) 일반가구 중 유배우가구 비율 1995년 76.6%→2013년[°] 61.6%→2030년[°] 53.8%로 감소 전망
 - ▶ 같은기간 미혼가구 비율은 12.6%→20.9%→23.8%, 이혼가구 비율은 2.6%→8.5%→14.1% 증가
 - (미혼 가구주) 미혼가구주 중 40세이상 비율 : 1995년 6.0%→2013년[°] 22.7%→2030년[°] 50.9%
 - ▶ 1995~2013년 기간 동안 미혼가구주 37만1천가구 증가, 이중 30대에서 15만8천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
 - ▶ 2013년[°]~2030년[°] 동안 21만7천가구 증가 전망, 이중 40세이상에서 31만9천가구 증가, 20~30대 10만천가구 감소
 - (이혼 가구주) 이혼가구주 주된 연령층 : '95년 40대(42.9%)→2013년[°] 50대(39.7%)→2030년[°] 60세이상(60.9%)
 - ▶ 1995~2013년[°] 기간 동안 이혼가구주 22만6천가구 증가, 이중 50대에서 10만4천가구가 증가
 - ▶ 2013년[°]~2030년[°] 동안 60세이상 이혼가구주 28만7천가구 증가할 전망, 30~40대는 4만7천여가구 감소

1. 혼인현황

1-1. 혼인건수

혼인건수는 1993년 103,511건에서 2013년 68,819건으로 지난 20년 새 33.5%(34,692건) 감소
 → 1990년 이후 혼인은 1996년 105,100건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를 나타냄.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1993년 9.5건에서 2013년 6.9건으로 감소

- 지난 20년 동안(1993~2013년) 혼인 및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이 감소하고 있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혼인건수(남편기준)는 6만8,819건으로 1993년(10만3,511건) 대비 33.5%(34,692건) 감소하였으며, 2013년 혼인은 '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1993~2013년 간 혼인의 변화를 보면, 혼인은 1993년 10만3,511건에서 1995년 9만8,525건으로 감소하다 1996년 10만5,100건으로 '95년 대비 6.7%(6,575건) 증가하여 정점에 달했으며, 이후 2005년(71,286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2006년부터는 등락을 반복하다 2013년(6만8,819건)에는 7만여건도 안되는 수준으로 하락함.
 - '90년 이후 혼인건수가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해는 1996년 10만5,100건에서 1997년 9만3,932건으로 10.6%(11,168건) 감소하였을 때임.
- 조혼인율(인구1천명당 혼인건수)은 1993년 9.5건에서 1996년 10.0건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하여 2013년 6.9건으로 줄었음.



1-3. 남성 연령별 혼인

남성 주 혼인연령층은 2003년부터 30대가 20대보다 많아짐, 2013년 남성혼인 중 30대 구성비 63.0%
 → 남성 혼인에서 20대는 지난 20년 새 52,408건 감소, 30대 13,066건 증가, 40세이상 5,002건 증가
 남성 평균 초혼연령은 1993년 28.5세에서 2013년 32.6세로 20년 새 4.1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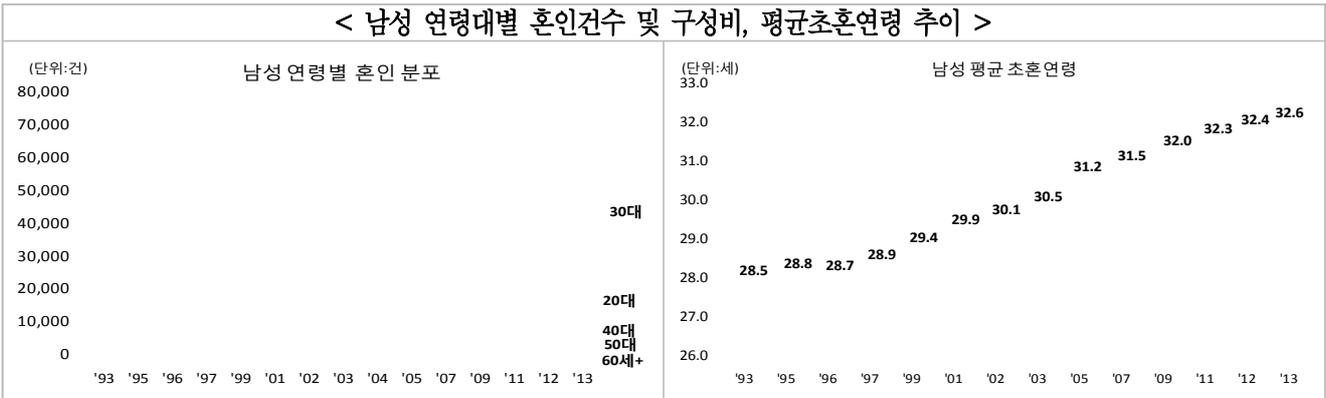
□ 지난 20년간 혼인 감소와 함께 혼인연령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미혼 증가 및 만혼화가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남자 연령별 혼인을 살펴보면, 20대 남성의 혼인감소 및 30대 남성의 혼인 증가로 2003년부터 남성은 30대 혼인이 2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 남성 혼인은 1993년 68,550건에서 2013년 16,142건으로 20년 새 52,408건 줄었으며, 30대 남성 혼인은 1993년 30,299건에서 2013년 43,365건으로 20년 새 13,066건 증가함.
- 구성비는 1993년에는 남성 혼인 중 20대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9.3%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30대가 63.0%로 가장 많고, 20대가 23.5%를 차지함.
- 또한 40세이상 남성 혼인은 1993년 4,210건에서 2013년 9,212건으로 20년 새 5,002건 증가했으며, 전체 남성 혼인 중 40대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4.0%에서 2013년 13.4%로 증가함.

□ 남성 평균초혼연령은 1993년 28.5세에서 2013년 32.6세로 20년 새 4.1세 높아짐.

< 남성 연령대별 혼인건수 및 구성비, 평균초혼연령 추이 >



구분		남성 연령대별 혼인건수 및 구성비 추이 (단위: 건, %)														A B	
		1993년 (A)	1995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B)	증감	증감률
혼인건수	계	103,511	98,525	105,100	93,932	85,215	77,376	72,696	72,750	71,286	76,399	68,841	71,519	71,695	68,819	-34,692	-33.5
	20세미만	436	381	440	363	315	259	180	142	122	103	59	81	72	100	-336	-77.1
	20대	68,550	63,295	67,897	59,548	48,868	39,662	34,917	31,830	26,084	26,600	21,477	19,684	17,996	16,142	-52,408	-76.5
	30대	30,299	29,830	31,432	28,835	29,891	30,729	31,129	32,852	35,150	40,518	38,243	42,349	44,140	43,365	13,066	43.1
	40대	2,783	3,251	3,599	3,419	4,074	4,616	4,368	5,286	6,289	5,784	5,633	5,934	6,077	5,988	3,205	115.2
	50대	1,069	1,319	1,280	1,219	1,543	1,600	1,582	1,943	2,772	2,460	2,364	2,451	2,370	2,211	1,142	106.8
60세이상	358	447	416	398	519	510	519	696	869	934	1,065	1,020	1,040	1,013	655	183.0	
미상	16	2	36	150	5	0	1	1	0	0	0	0	0	0	0		
구성비	20세미만	0.4	0.4	0.4	0.4	0.4	0.3	0.2	0.2	0.2	0.1	0.1	0.1	0.1	0.1	-0.3	
	20대	66.2	64.2	64.6	63.4	57.3	51.3	48.0	43.8	36.6	34.8	31.2	27.5	25.1	23.5	-42.8	
	30대	29.3	30.3	29.9	30.7	35.1	39.7	42.8	45.2	49.3	53.0	55.6	59.2	61.6	63.0	33.7	
	40대	2.7	3.3	3.4	3.6	4.8	6.0	6.0	7.3	8.8	7.6	8.2	8.3	8.5	8.7	6.0	
	50대	1.0	1.3	1.2	1.3	1.8	2.1	2.2	2.7	3.9	3.2	3.4	3.4	3.3	3.2	2.2	
	60세이상	0.3	0.5	0.4	0.4	0.6	0.7	0.7	1.0	1.2	1.2	1.5	1.4	1.5	1.5	1.1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통계)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4. 여성 연령별 혼인

여성 주 혼인연령층은 2013년 처음으로 30대 여성 혼인이 20대를 추월하였음.

→ 여성 혼인에서 20대 비중은 1993년에는 83.8%로 매우 높았으나 2013년에는 30대 47.0%, 20대 43.4%임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1993년 25.7세에서 2013년 30.4세로 20년 새 4.7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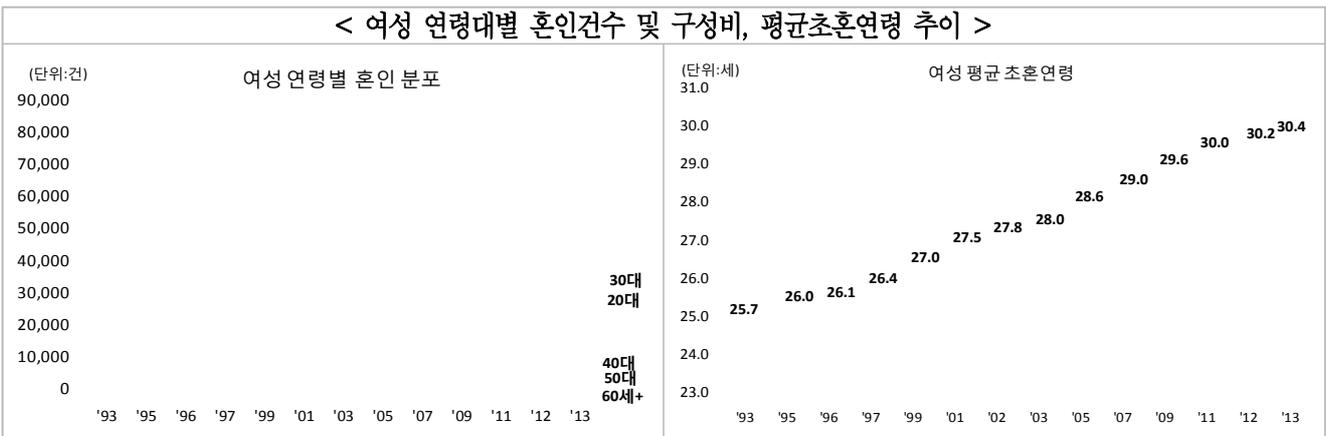
□ 여성의 혼인연령 상승으로 2013년 처음으로 30대가 20대 혼인을 추월하였음.

□ 여자 연령별 혼인을 살펴보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20대 혼인감소 및 30대 혼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처음으로 30대 혼인이 2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혼인 중 20대는 1993년 80,646건에서 2013년 30,325건으로 20년 새 62.4%(50,321건) 줄었으며, 30대는 1993년 10,873건에서 2013년 32,784건으로 20년 새 201.5%(21,911건) 증가함.
- 여성 혼인 중 20대 구성비가 1993년에는 83.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0대는 11.3%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30대 여성이 47.0%로 가장 많고, 20대가 43.4%를 차지함.
- 또한 40세이상 여성 혼인은 1993년 2,460건에서 2013년 6,419건으로 20년 새 2.6배 증가했으며, 전체 여성 혼인 중 40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2.6%에서 2013년 9.3%로 증가하였음.

□ 여성 평균초혼연령은 1993년 25.7세에서 2013년 30.4세로 20년 새 4.7세 높아짐.

< 여성 연령대별 혼인건수 및 구성비, 평균초혼연령 추이 >



구분		여성 연령대별 혼인건수 및 구성비 추이												(단위: 건, %)		
		1993년 (A)	1995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B)	A, B 증감률	증감률
혼 인 건 수	계	96,215	93,611	101,336	92,165	85,813	74,690	68,594	67,295	74,239	67,457	71,216	71,839	69,801	-26,414	-27.5
	20세미만	2,227	1,805	2,042	1,427	1,199	835	482	382	309	206	243	209	273	-1,954	-87.7
	20대	80,646	77,880	83,918	75,654	66,090	53,984	46,742	41,894	44,576	36,682	34,837	33,090	30,325	-50,321	-62.4
	30대	10,873	11,148	12,209	11,618	13,826	15,078	16,785	19,238	23,458	24,537	29,783	32,093	32,784	21,911	201.5
	40대	1,803	2,066	2,451	2,582	3,613	3,708	3,489	4,170	4,047	3,940	3,878	3,952	3,955	2,152	119.4
	50대	544	598	598	631	917	895	899	1,361	1,504	1,661	2,005	1,993	1,931	1,387	255.0
60세이상	113	105	110	125	162	190	195	250	345	431	470	502	533	420	371.7	
구 성 비	20세미만	2.3	1.9	2.0	1.5	1.4	1.1	0.7	0.6	0.4	0.3	0.3	0.3	0.4	-1.9	
	20대	83.8	83.2	82.8	82.1	77.0	72.3	68.1	62.3	60.0	54.4	48.9	46.1	43.4	-40.4	
	30대	11.3	11.9	12.0	12.6	16.1	20.2	24.5	28.6	31.6	36.4	41.8	44.7	47.0	35.7	
	40대	1.9	2.2	2.4	2.8	4.2	5.0	5.1	6.2	5.5	5.8	5.4	5.5	5.7	3.8	
	50대	0.6	0.6	0.6	0.7	1.1	1.2	1.3	2.0	2.0	2.5	2.8	2.8	2.8	2.2	
	60세이상	0.1	0.1	0.1	0.1	0.2	0.3	0.3	0.4	0.5	0.6	0.7	0.7	0.8	0.6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통계)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5.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초혼부부 중 남자 연상 비율 : 1993년 81.2% → 2013년 68.7%로 감소

초혼부부 중 여자가 연상이거나 부부가 동갑인 비율 : 1993년 18.7% → 2013년 31.3%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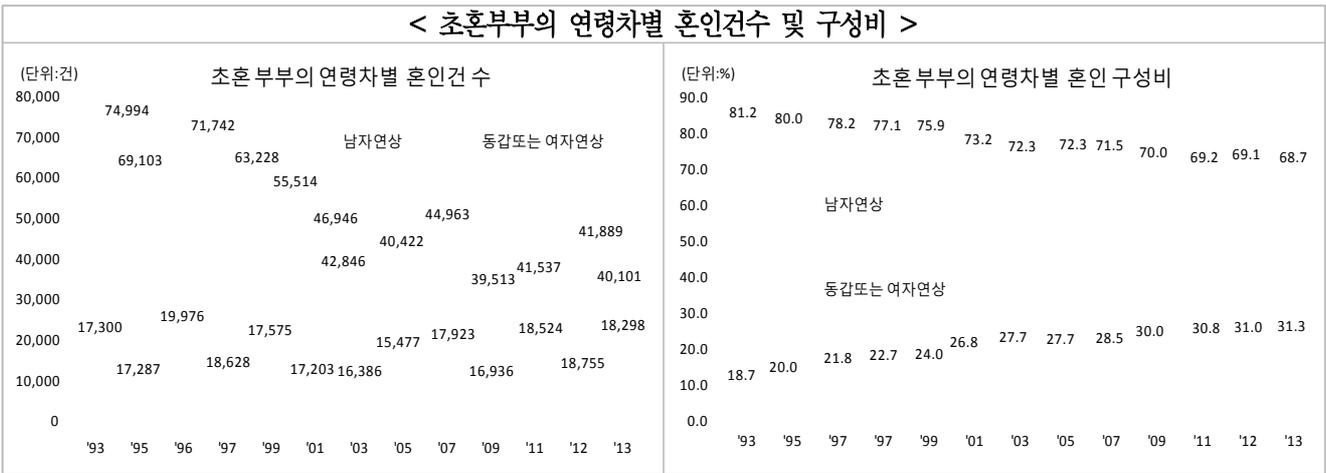
□ 초혼 부부의 연령차별 혼인건수를 보면,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높았던 남자연상인 혼인 형태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가 연상인 혼인건수는 1993년 74,994건에서 2013년 40,101건으로 지난 20년 새 46.5%(34,89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동갑 또는 여자 연상 혼인은 1993년 17,300건에서 1996년 19,976건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2005년(15,477건)까지 감소했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13년 18,298건으로 '93년 대비해서는 5.8%(998건) 증가함.

□ 초혼 부부 중 연령차별 혼인 구성비를 보면, 1993년 초혼부부 중 남자 연상이 81.2%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68.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갑 커플 비율은 1993년 9.8%에서 2013년 15.8%로 증가, 여자연상 커플은 1993년 8.9%에서 2013년 15.5%로 증가하였음.
- 초혼부부 중 여자연상 또는 동갑인 비중은 1993년 18.7%에서 2013년 31.3%로 증가함.

<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건수 및 구성비 >



구분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건수 및 구성비 추이 (단위: 건, %)													A, B 증감율	B, C 증감율	A, C 증감율	
	1993년 (A)	1995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B)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C)				
혼인건수	계	92,302	86,403	91,777	81,991	73,103	64,149	59,233	55,899	62,886	56,449	60,061	60,644	58,399	-39.4	4.5	-36.7
	남자연상	74,994	69,103	71,742	63,228	55,514	46,946	42,846	40,422	44,963	39,513	41,537	41,889	40,101	-46.1	-0.8	-46.5
	동갑+여자연상	17,300	17,287	19,976	18,628	17,575	17,203	16,386	15,477	17,923	16,936	18,524	18,755	18,298	-10.5	18.2	5.8
	- 동갑	9,076	9,235	10,659	10,069	9,348	9,279	9,041	8,549	9,820	9,003	9,586	9,505	9,236	-5.8	8.0	1.8
	- 여자연상	8,224	8,052	9,317	8,559	8,227	7,924	7,345	6,928	8,103	7,933	8,938	9,250	9,062	-15.8	30.8	10.2
미상	8	13	59	135	14	0	1	0	0	0	0	0	0				
구성비	남자연상	81.2	80.0	78.2	77.1	75.9	73.2	72.3	72.3	71.5	70.0	69.2	69.1	68.7			
	동갑+여자연상	18.7	20.0	21.8	22.7	24.0	26.8	27.7	27.7	28.5	30.0	30.8	31.0	31.3			
	- 동갑	9.8	10.7	11.6	12.3	12.8	14.5	15.3	15.3	15.6	15.9	16.0	15.7	15.8			
	- 여자연상	8.9	9.3	10.2	10.4	11.3	12.4	12.4	12.4	12.9	14.1	14.9	15.3	15.5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통계)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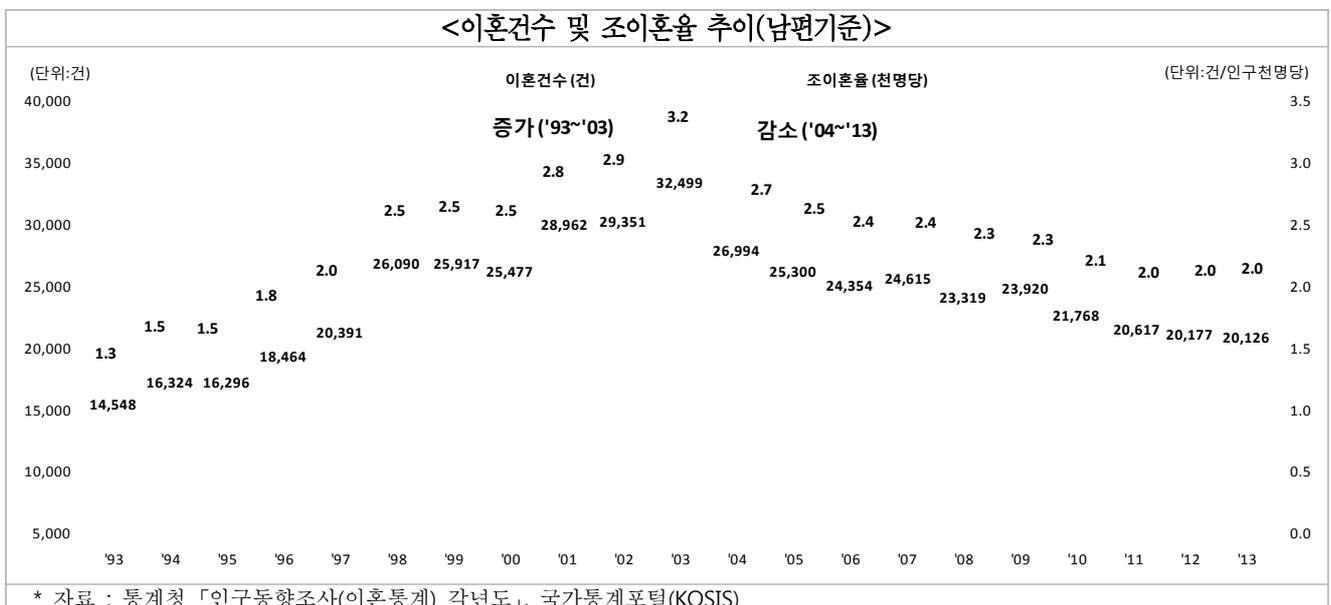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이혼현황

2-1. 이혼건수

지난 20년간 이혼건수는 1993~2003년 기간 증가한 후, 2004~2013년 기간에는 감소 추세
 → 1993년 14,548건에서 2003년 32,499건으로 증가하여 정점(2003년) 도달 이후 감소추세를 보임
 → 2013년에는 20,126건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연간 2만 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음.
 조이혼율(인구1천명당 이혼건수) : 1993년 1.3건→2003년 3.2건→2013년 2.0건

- 이혼은 1993년~2003년 기간 동안 증가추세였으나, 2004~2013년 기간에는 감소 추세로 전환됨.
- 통계에 따르면, 1996년 정점에서 1997년부터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던 혼인과는 대조적으로 이혼은 1997년을 계기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연간 2만 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음.
 - 1993년 1만4,548건이었던 이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다 1997년 2만391건으로 처음으로 2만 건을 넘긴 이후 2003년 3만2,499건으로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2004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2만126건에 이르렀음.
 - 1998년(26,090건)에는 전년대비 27.9%(5,699건)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26,994건)에는 전년대비 16.9%(5,505건)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조이혼율(인구1천명당 이혼건수)은 1993년 1.3건에서 1997년 2.0건, 2003년 3.2건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2004년 2.7건, 2013년 2.0건으로 감소함.
 - 2010년 이후부터 조이혼율은 2.0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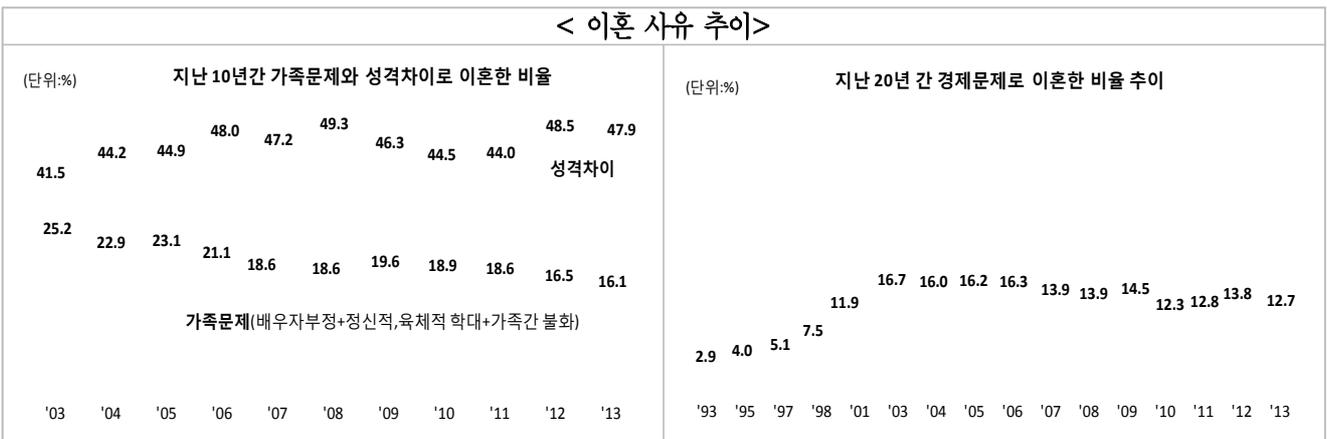


2-2. 이혼사유

2013년 이혼사유 : 성격차이 47.9%, 가족문제 16.1%, 경제문제 12.7% 등의 순
 → 성격차이는 2003년 41.5%에서 2013년 47.9%로 증가함.

-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사유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 이혼 중 절반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혼사유의 목록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혼신고서의 이혼사유를 묻는 항목이 2000년대부터 바뀌어 2000년 이전과 이후를 직접적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항목끼리 10년간 및 20년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음.
 - 먼저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가장 주된 이혼사유인 부부간 성격차이 비중의 증가임. 성격차이는 2003년 이혼사유 41.5%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 49.3%를 차지한 이후 2011년에는 44.0%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는 47.9%임.
 - 다음으로 경제문제가 이혼사유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의 변화를 지난 20년간 (1993~2013년) 자료로 살펴보면, 1993년에는 경제문제로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중 2.9%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는 7.5%로 높았고, 2003년 16.7%까지 증가했으며, 이후 다소 낮아지면서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들어서는 12~14%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이혼사유로 가족문제(가족간 불화+배우자부정+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25.2%에서 2013년 16.1%로 지난 10년 간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이혼 사유 추이 >



구분	이혼 사유 (단위: 건)															
	1993년	1995년	1997년	1998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4,548	16,296	20,391	26,090	28,962	32,499	26,994	25,300	24,354	24,615	23,319	23,920	21,768	20,617	20,177	20,126
부부불화+가족간불화	12,195	13,454	16,669	20,845												
배우자 부정					2,225	2,291	1,770	1,888	1,798	1,762	1,630	1,888	1,689	1,610	1,438	1,416
정신적, 육체적 학대					1,120	1,234	1,025	955	965	959	993	1,190	972	883	765	697
가족간 불화					5,420	4,679	3,374	3,011	2,384	1,869	1,715	1,609	1,444	1,344	1,136	1,121
경제문제	427	644	1,037	1,952	3,459	5,423	4,318	4,091	3,965	3,431	3,241	3,468	2,671	2,646	2,779	2,551
성격차이					12,355	13,489	11,943	11,365	11,689	11,626	11,501	11,070	9,694	9,064	9,790	9,635
건강문제	141	109	161	202	174	172	150	153	158	164	109	118	127	124	99	110
기타	1,777	1,774	2,428	3,091	3,731	4,773	3,895	3,278	2,936	3,882	3,718	4,181	4,776	4,491	3,829	4,352
미상	8	315	96	0	478	438	519	559	459	922	412	396	395	455	341	244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이혼통계)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가족문제는 배우자부정+정신적, 육체적 학대+가족간 불화를 포함하고 있음.

2-3. 남성 연령별 이혼

남성 이혼 중 연령별 구성비는 1993년 30대(49.2%), 40대(26.5%)에서 2013년 40대(35.7%), 50대(26.9%) 순임
 → 남성이혼 중 50대는 지난 20년 새 4.4배 증가(1,220건→5,405건), 60세이상 9.0배 증가(261건→2,348건)
 남성 평균 이혼연령은 1993년 38.4세에서 2013년 47.4세로 20년 새 9.0세 증가

- 이혼 당시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만혼으로 인해 결혼연령 자체가 상승한 원인일 수 있으나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 이상에서 이혼이 증가한데서 기인함.
- 이혼당시 남성의 연령별 구성비는 1993년은 30대가 49.2%, 40대 2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40대가 35.7%, 50대 26.9% 순으로 비중이 높음.
 - 30~40대 연령층의 남자 이혼은 2003년 정점을 찍고, 이후 2004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세이상 남성 이혼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긴 하나 지난 20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2013년 남자 이혼 중 50대는 5,405건으로 1993년(1,220건) 대비 4.4배 증가, 60세이상 남성 이혼은 1993년 261건에서 2013년 2,348건으로 20년 새 9.0배 증가함.
 - 이혼 남성의 연령별 구성비는 1993년 30대 49.2%, 40대 26.5%, 20대이하 14.1%, 50대 8.4%, 60세이상 1.8%순에서 2013년에는 40대가 35.7%, 50대 26.9%, 30대 22.7%, 60세이상 11.7% 순임.
- 이혼 당시 남자 평균 이혼연령은 1993년 38.4세에서 2013년 47.4세로 20년 간 9.0세 증가함.

연령별 남성 이혼건수													남성 평균 이혼 연령											
(단위:건)													(단위:세)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남성 평균 이혼 연령											
'93 '95 '97 '99 '01 '03 '04 '05 '07 '09 '11 '13													'93 '95 '97 '99 '01 '03 '04 '05 '07 '09 '11 '13											
14,000													38.4	38.8	39.6	40.6	41.0	42.2	42.4	42.9	44.2	45.5	46.3	47.4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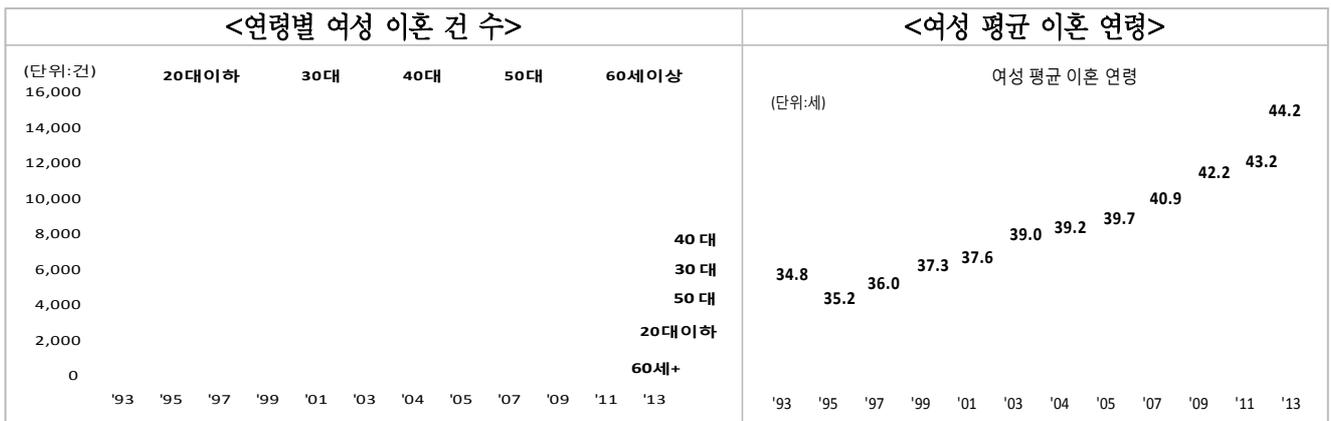
연령별 남성 이혼건수 및 구성비 추이													(단위: 건, %)			
구 분		1993년 (A)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B)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C)	A, B 증감율	B, C 증감율	A, C 증감율
이혼건수	계	14,548	16,296	20,391	25,917	28,962	32,499	26,994	25,300	24,615	23,920	20,617	20,126	123.4	-38.1	38.3
	20대이하	2,053	2,214	2,506	2,819	2,768	2,158	1,732	1,566	1,310	1,075	729	606	5.1	-71.9	-70.5
	30대	7,156	7,778	9,105	10,479	11,591	12,356	10,119	9,235	8,126	6,745	5,241	4,573	72.7	-63.0	-36.1
	40대	3,848	4,520	6,186	8,633	10,076	11,846	9,900	9,079	8,835	8,740	7,478	7,194	207.8	-39.3	87.0
	50대	1,220	1,480	2,120	3,222	3,533	4,561	3,955	3,909	4,419	5,150	5,126	5,405	273.9	18.5	343.0
	60세이상	261	304	462	761	994	1,578	1,288	1,511	1,925	2,210	2,043	2,348	504.6	48.8	799.6
미상	10	0	12	3	0	0	0	0	0	0	0	0				
구성비	20대이하	14.1	13.6	12.3	10.9	9.6	6.6	6.4	6.2	5.3	4.5	3.5	3.0			
	30대	49.2	47.7	44.7	40.4	40.0	38.0	37.5	36.5	33.0	28.2	25.4	22.7			
	40대	26.5	27.7	30.3	33.3	34.8	36.5	36.7	35.9	35.9	36.5	36.3	35.7			
	50대	8.4	9.1	10.4	12.4	12.2	14.0	14.7	15.5	18.0	21.5	24.9	26.9			
	60세이상	1.8	1.9	2.3	2.9	3.4	4.9	4.8	6.0	7.8	9.2	9.9	11.7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이혼통계)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4. 여성 연령별 이혼

여성의 주 이혼연령층은 1993년 30대(48.7%), 20대이하(29.3%)에서 2013년 40대(36.6%), 30대(28.6%) 순
 → 여성 이혼에서 50대는 20년 새 7.4배 증가(585건→4,350건), 60세이상 13.9배 증가(97건→1,352건)
 여성 평균 이혼연령은 1993년 34.8세에서 2013년 44.2세로 20년 새 9.4세 증가

- 이혼 당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혼당시 여성의 연령별 구성비는 1993년은 30대가 48.7%, 20대이하 2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40대가 36.6%, 30대 28.6% 순으로 비중이 높음.
 - 30~40대 연령층의 여자 이혼은 2003년 정점 이후 2004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50대 이상 여성 이혼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긴 하나 지난 20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여성 이혼 중 50대는 2013년 4,350건으로 1993년(585건) 대비 7.4배 증가, 60세이상 은 1993년 97건에서 2013년 1,352건으로 20년 새 13.9배나 증가함.
 - 이혼 당시 여성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1993년 30대 48.7%, 20대이하 29.3%, 40대 17.5%, 50대 3.8%, 60세이상 0.6% 순에서 2013년에는 40대 36.6%, 30대 28.6%, 50대 21.4%, 20대이하 6.8%, 60세이상 6.6% 순으로 나타남.
- 이혼 시 여자 평균 이혼연령은 1993년 34.8세에서 2013년 44.2세로 20년 간 9.4세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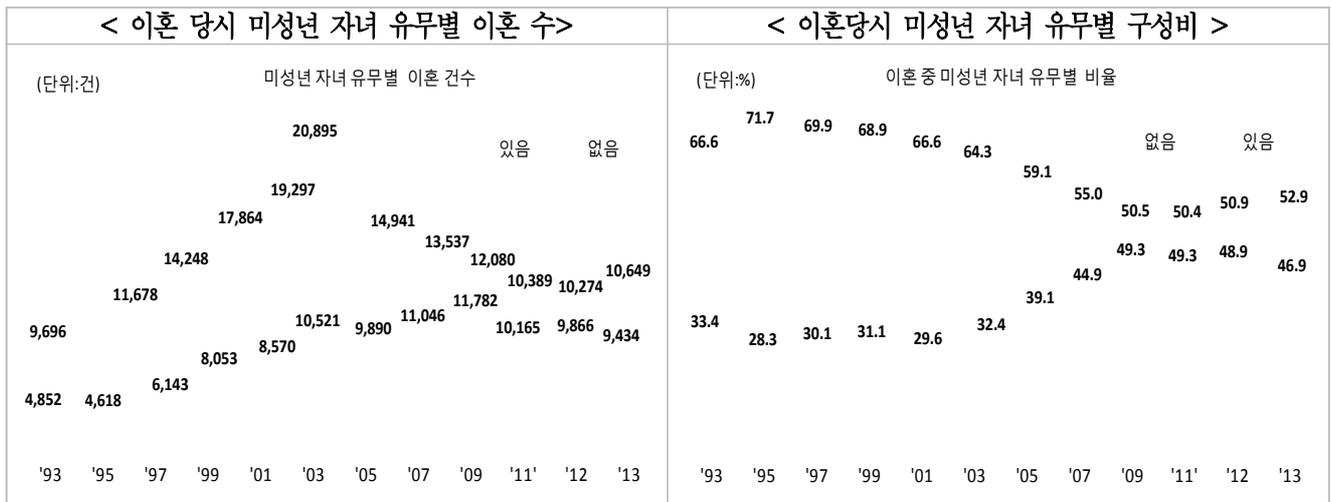
구 분	연령별 여성 이혼건수 및 구성비 추이 (단위: 건, %)												증감률			
	1993년 (A)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B)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C)	A, B	B, C	A, C	
이혼건수	계	15,341	17,149	21,232	27,099	30,194	33,490	27,839	25,936	25,495	24,257	20,572	20,343	118.3	-39.3	32.6
이혼건수	20대이하	4,497	4,772	5,387	5,844	6,228	5,149	4,066	3,555	2,998	2,355	1,695	1,391	14.5	-73.0	-69.1
	30대	7,468	8,206	9,837	11,827	12,685	13,936	11,568	10,695	9,806	8,367	6,583	5,811	86.6	-58.3	-22.2
	40대	2,679	3,332	4,809	7,346	8,782	10,688	9,044	8,271	8,395	8,581	7,176	7,439	299.0	-30.4	177.7
	50대	585	733	1,017	1,765	2,085	3,079	2,602	2,713	3,327	3,833	4,015	4,350	426.3	41.3	643.6
	60세이상	97	106	163	316	414	638	559	702	969	1,121	1,103	1,352	557.7	111.9	1293.8
구성비	20대이하	29.3	27.8	25.4	21.6	20.6	15.4	14.6	13.7	11.8	9.7	8.2	6.8			
	30대	48.7	47.9	46.3	43.6	42.0	41.6	41.6	41.2	38.5	34.5	32.0	28.6			
	40대	17.5	19.4	22.6	27.1	29.1	31.9	32.5	31.9	32.9	35.4	34.9	36.6			
	50대	3.8	4.3	4.8	6.5	6.9	9.2	9.3	10.5	13.0	15.8	19.5	21.4			
	60세이상	0.6	0.6	0.8	1.2	1.4	1.9	2.0	2.7	3.8	4.6	5.4	6.6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이혼통계)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6. 미성년 자녀수별 이혼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이혼 비중은 1993년 33.4%에서 2013년 52.9%로 증가

-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유무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1993년 66.6%에서 2013년 46.9%로 감소함.
- 이혼이 가장 많았던 2003년에는 최소 33천명이상의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최소 14천명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1993년 33.4%에서 2013년 52.9%로 증가했으며, 2011년부터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 보다 이혼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음.
-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대체로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결혼 초기단계의 부부와 20년이상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이미 성장한 부부로 구분되었을 경우 등으로 보임.



구분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수별 현황													
	1993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혼건수(건)	계	14,548	16,296	20,391	25,917	28,962	32,499	26,994	25,300	24,615	23,920	20,617	20,177	20,126
	미성년자녀 없음	4,852	4,618	6,143	8,053	8,570	10,521	9,684	9,890	11,046	11,782	10,389	10,274	10,649
	미성년자녀 있음	9,696	11,678	14,248	17,864	19,297	20,895	16,573	14,941	13,537	12,080	10,165	9,866	9,434
	- 1명	4,779	5,857	6,987	8,918	9,477	9,673	7,841	7,115	6,693	6,052	5,329	5,257	5,137
	- 2명	4,355	5,123	6,462	8,194	8,928	10,158	7,898	6,994	6,069	5,312	4,282	4,056	3,747
	- 3명이상	562	698	799	752	892	1,064	834	832	775	716	554	553	550
미상	0	0	0	0	1,095	1,083	737	469	32	58	63	37	43	
구성비(%)	미성년자녀 없음	33.4	28.3	30.1	31.1	29.6	32.4	35.9	39.1	44.9	49.3	50.4	50.9	52.9
	미성년자녀 있음	66.6	71.7	69.9	68.9	66.6	64.3	61.4	59.1	55.0	50.5	49.3	48.9	46.9
	- 1명	32.8	35.9	34.3	34.4	32.7	29.8	29.0	28.1	27.2	25.3	25.8	26.1	25.5
	- 2명	29.9	31.4	31.7	31.6	30.8	31.3	29.3	27.6	24.7	22.2	20.8	20.1	18.6
	- 3명이상	3.9	4.3	3.9	2.9	3.1	3.3	3.1	3.3	3.1	3.0	2.7	2.7	2.7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이혼통계)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2008→2012) : 해야한다 68.0%→62.4%로 감소, 선택사항이다 28.2%→34.0%로 증가
이혼(2008→2012) : 해서는 안된다 57.3%→44.8%로 감소, 선택사항이다 33.2%→42.1%로 증가

- 결혼에 있어서 만혼화 또는 혼인 감소와 더불어 감소추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높은 이혼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가치관) 변화와 연관이 있음.
- 서울시민들은 결혼을 해야한다는 가치관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결혼에 대한 선택적 의견은 높아지고 있음.
 - 만 15세이상 서울시민은 ‘결혼은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2008년 68.0%에서 2012년 62.4%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사항’이라는 견해는 2008년 28.2%에서 2012년 34.0%로 증가하였음.
- 또한, 서울시민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 또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허용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임.
 - 2012년 사회조사 결과,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0.5%로 2012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 ‘이혼은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012년 44.8%로 조사가 실시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음.
 - 또한 ‘이혼은 선택사항’이라는 의견은 2008년 33.2%에서 2012년 42.1%로 증가함.

<결혼에 대한 견해(태도)>			<이혼에 대한 견해(태도)>		
(단위:%)			(단위:%)		
68.0	63.3	62.4	57.3	55.2	44.8
	결혼은 해야한다			이혼해서는 안된다	42.1
28.2	33.3	34.0	33.2	35.9	42.1
	결혼은 선택사항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다	
3.5	2.6	1.7	6.9	6.4	10.5
	결혼은 안해도된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	
2008년	2010년	2012년	2008년	2010년	2012년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결혼 해야한다 : `반드시 해야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가 포함,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가 포함
 결혼태도에 잘모르겠음 항목 2008년 1.3%, 2010년 0.8%, 2012년 1.9%
 - 이혼해서는 안된다 :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포함.
 이혼태도에 잘모르겠음 항목 2008년 2.6%, 2010년 2.5%, 2012년 2.6%

4. 가구주 혼인상태

4-1. 가구주 혼인상태 변화

**미혼, 이혼 증가로 유배우가구 비율은 1995년 76.6% → 2013년^e 61.6% → 2030년^e 53.8% 감소 전망
 → 미혼가구 비율 : 12.6%→20.9%→23.8%로 증가, 이혼가구 비율 : 2.6%→8.5%→14.1%로 증가
 가구주 혼인상태 변화 전망 : 유배우>미혼>사별>이혼(2013년^e) → 유배우>미혼>이혼>사별(2030년^e)**

- 미혼, 이혼 증가로 인해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감소하고, 미혼 및 이혼 가구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유배우 가구는 2013년^e 219만6천가구로 1995년(227만3천가구) 대비 3.4% 감소했으며, 2030년^e에는 217만6천가구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 미혼 가구는 1995년 37만4천가구에서 2013년^e 74만5천가구로 18년 새 99.1%(37만1천가구) 증가했으며, 2030년^e에는 2013년^e 대비 21만7천가구 증가하여 96만2천가구가 될 전망이다.
- 이혼 가구는 1995년 7만8천가구에서 2013년^e 30만3천가구로 18년새 290.3%(22만6천가구) 증가했으며, 2030년^e에는 2013년^e 대비 26만5천가구 증가하여 56만8천가구가 될 전망이다.
-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혼인상태별 가구유형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가구 중 유배우 가구 비율은 1995년 76.6%에서 2013년^e 61.6%로 지속적으로 줄었으며, 2030년^e에는 53.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반면,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미혼인 가구주 비율은 1995년 12.6%에서 2013년^e 20.9%로 증가했으며, 2030년^e에는 23.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또한 이혼 가구주 비율은 1995년에는 2.6%에 불과했으나, 2013년^e 8.5%로 증가했고, 2030년^e에는 14.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가구주의 주된 혼인상태 분포는 2013년^e 현재 유배우>미혼>사별>이혼에서 2030년^e에는 유배우>미혼>이혼>사별로 변화될 전망이다.

<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 수 >			<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 수 및 구성비 >								
(단위:천가구)	2,273	2,196	2,176	구 분	가구 수 및 구성비 추이 (단위: 가구, %, %p)				증감률		
					1995년(A)	2013년 ^e (B)	2030년 ^e (C)	A, B 증감현황	B, C 증감 전망	증감B-A	증감C-B
					계	유배우	미혼	이혼	사별	미상	계
					2,965,794	3,567,727	4,042,164	601,933	20.3	474,437	13.3
				가	2,273,227	2,196,226	2,175,592	-77,001	-3.4	-20,634	-0.9
				구	374,347	745,316	962,037	370,969	99.1	216,721	29.1
				수	77,720	303,378	568,006	225,658	290.3	264,628	87.2
		745	962		240,498	322,807	336,529	82,309	34.2	13,722	4.3
					2						
	374	323	568	구	76.6	61.6	53.8	-15.1	-7.7		
	240	303	337	성	12.6	20.9	23.8	8.3	2.9		
	78			비	2.6	8.5	14.1	5.9	5.5		
					8.1	9.0	8.3	0.9	-0.7		
	1995년	2013년 ^e	2030년 ^e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년」, 「장래가구추계 2013년, 2030년」, 국가통계포털(KOSIS), e는 추정치임.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2. 미혼 가구주

1995~2013년^e 동안 미혼가구주 37만1천가구 증가, 이중 30대에서 15만8천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
 2013^e~2030년^e 동안 미혼가구주 21만7천가구 증가할 전망

→ 이중 50세이상에서 25만9천가구 증가, 40대 6만여가구 증가, 20~30대 10만1천가구 감소
 미혼 가구주 중 40세이상 비율 : 1995년 6.0% → 2013년^e 22.7% → 2030년^e 50.9% 전망

- (1995~2013년^e) 지난 18년 동안 모든 연령층에서 미혼 가구주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30대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했고, 40대 및 50세이상 고연령층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임.
 - 18년 동안 미혼가구주는 37만1천가구 증가하였고, 이중 30대에서 15만8천가구 증가, 40대에서 9만9천가구가 증가하였으며, 20대는 6만여가구, 50대 3만7천가구, 60세이상도 1만2천가구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혼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대는 1995년 63.2%에서 2013년^e 39.9%로 큰폭으로 줄었으며, 30대는 28.1%→35.3%로 증가했고, 40대 4.7%→15.6%, 50대 1.0%→5.4%, 60세이상은 0.3%→1.7%로 각각 증가함.
- (2013^e~2030년^e) 젊은층 인구 감소로 인해 30대이하 미혼 가구주는 감소, 40세이상 미혼가구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50세이상에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추정됨.
 - 2030년^e 미혼가구주는 2013년^e 대비 21만7천가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령별로 보면 이중 50대에서 15만3천가구, 60세이상에서 10만6천가구, 40대에서 6만여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20~30대에서 10만1천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미혼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는 2013년^e 39.9%에서 2030년^e 26.7%로 감소, 30대는 35.3%에서 21.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40대는 15.6%→18.3%, 50대는 5.4%→20.2%, 60세이상은 1.7%→12.4%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미혼가구 중 40세이상 비율이 1995년 6.0%→2013년^e 22.7%→2030년^e 50.9%로 증가 될 전망이다.

<미혼가구주의 연령별 추이 >				< 미혼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 (단위: 가구, %, %p)						
							A, B 증감현황		B, C 증감 전망	
(단위:천가구)				1995년(A)	2013년 ^e (B)	2030년 ^e (C)	증감B-A	증감률	증감C-B	증감률
297	20대	257	계	374,347	745,316	962,037	370,969	99.1	216,721	29.1
			20세미만	10,268	15,732	13,866	5,464	53.2	-1,866	-11.9
			20대	236,622	297,070	257,015	60,448	25.5	-40,055	-13.5
			30대	105,056	262,770	202,295	157,714	150.1	-60,475	-23.0
			40대	17,484	116,224	175,952	98,740	564.7	59,728	51.4
			50대	3,679	40,577	193,893	36,898	1002.9	153,316	377.8
263	30대	202	60세이상	1,238	12,943	119,016	11,705	945.5	106,073	819.5
			20세미만	2.7	2.1	1.4	-0.6		-0.7	
			20대	63.2	39.9	26.7	-23.4		-13.1	
			30대	28.1	35.3	21.0	7.2		-14.2	
			40대	4.7	15.6	18.3	10.9		2.7	
			50대	1.0	5.4	20.2	4.5		14.7	
116	40대	119	60세이상	0.3	1.7	12.4	1.4		10.6	
			20세미만	2.7	2.1	1.4	-0.6		-0.7	
			20대	63.2	39.9	26.7	-23.4		-13.1	
			30대	28.1	35.3	21.0	7.2		-14.2	
			40대	4.7	15.6	18.3	10.9		2.7	
			50대	1.0	5.4	20.2	4.5		14.7	
41	50대	119	60세이상	0.3	1.7	12.4	1.4		10.6	
			20세미만	2.7	2.1	1.4	-0.6		-0.7	
			20대	63.2	39.9	26.7	-23.4		-13.1	
			30대	28.1	35.3	21.0	7.2		-14.2	
			40대	4.7	15.6	18.3	10.9		2.7	
			50대	1.0	5.4	20.2	4.5		14.7	
13	60세이상	119	60세이상	0.3	1.7	12.4	1.4		10.6	
			20세미만	2.7	2.1	1.4	-0.6		-0.7	
			20대	63.2	39.9	26.7	-23.4		-13.1	
			30대	28.1	35.3	21.0	7.2		-14.2	
			40대	4.7	15.6	18.3	10.9		2.7	
			50대	1.0	5.4	20.2	4.5		14.7	
1995년	2013년 ^e	2030년 ^e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년」, 「장래가구추계 2013년, 2030년」, 국가통계포털(KOSIS), e는 추정치임.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3. 이혼 가구주

1995~2013년^e 동안 이혼가구주 22만6천가구 증가, 이중 50대에서 10만4천가주로 가장 많이 증가
 2013^e~2030년^e 동안 이혼가구주 26만5천가구 증가할 전망

→ 이중 60세이상 28만7천가구 증가, 50대 2만6천가구 증가, 30~40대에서 4만7천여가구 감소
 이혼 가구주 주된 연령층 : 1995년 40대(42.9%), 2013년^e 50대(39.7%), 2030년^e 60세이상(60.9%)

- (1995~2013년^e) 지난 18년 동안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 가구주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50대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했고, 60세이상 고연령층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18년 동안 이혼가구주는 22만6천가구 증가하였고, 이중 50대에서 10만4천가구, 40대에서 6만4천가구, 60세이상에서 5만5천가구가 각각 증가했으며, 증가율로 보면 60세이상은 1338%, 50대는 629%, 40대는 193% 증가함.
 - 이혼가구주의 연령별 비율은 30대는 95년 28.4%에서 2013년^e 8.0%로 큰폭으로 줄었으며, 40대는 42.9%→32.2%로 감소하였고, 50대는 21.3%→39.7%, 60세이상은 5.3%→19.5%로 각각 증가하였음.
 - 이혼가구주는 1995년에는 40대가 가장 높았으나 2013년^e에는 50대가 가장 많았음.
- (2013^e~2030년^e) 50세이상에서 이혼가구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60세이상에서 증가폭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됨. 또한 이혼가구주의 주된 연령층이 2013년^e 50대에서 2030년^e에는 60세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30년^e 이혼가구주는 2013년^e 대비 26만5천가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령별로 보면 이중 60세이상에서 28만7천가구 증가, 50대에서 2만6천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40대에서 4만여가구, 30대에서 7천여가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혼가구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30대는 2013년^e 8.0%에서 2030년^e 3.0%로 감소, 40대는 32.2%→10.2%, 50대는 39.7%→25.7%로 각각 감소할 전망이고, 60세이상은 19.5%에서 60.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2030년^e에는 이혼가구 5가구 중 3가구 꼴로 60세이상 연령층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이혼가구주의 연령별 추이 >			< 이혼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 (단위: 가구, %, %p)						
(단위:천가구)		346				A, B 증감현황		B, C 증감 전망	
			1995년(A)	2013년 ^e (B)	2030년 ^e (C)	증감B-A	증감율	증감C-B	증감율
	계		77,720	303,378	568,006	225,658	290.3	264,628	87.2
	60세이상		0	15	8	15		-7	-46.7
	20대		1,673	1,869	1,158	196	11.7	-711	-38.0
	30대		22,074	24,322	17,240	2,248	10.2	-7,082	-29.1
	40대		33,339	97,563	57,796	64,224	192.6	-39,767	-40.8
	50대		16,523	120,483	146,063	103,960	629.2	25,580	21.2
	60세이상		4,111	59,126	345,741	55,015	1338.2	286,615	484.8
	구성비(%)								
	20세미만		0.0	0.0	0.0	0.0		0.0	
	20대		2.2	0.6	0.2	-1.5		-0.4	
	30대		28.4	8.0	3.0	-20.4		-5.0	
	40대		42.9	32.2	10.2	-10.7		-22.0	
	50대		21.3	39.7	25.7	18.5		-14.0	
	60세이상		5.3	19.5	60.9	14.2		41.4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년」, 「장래가구추계 2013년, 2030년」, 국가통계포털(KOSIS), e는 추정치임.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가구주 혼인상태 및 연령별 가구 수 및 구성비 현황 >

(단위 : 가구, %, %p)

구 분		가구 수(가구)						구성비(%)							
		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995년 (A)	계	2,965,794	10,721	398,637	898,608	767,786	553,112	336,925	100.0	0.4	13.4	30.3	25.9	18.6	11.4
	유배우	2,273,227	453	159,783	758,972	670,749	457,069	226,198	100.0	0.0	7.0	33.4	29.5	20.1	10.0
	미혼	374,347	10,268	236,622	105,056	17,484	3,679	1,238	100.0	2.7	63.2	28.1	4.7	1.0	0.3
	이혼	77,720	0	1,673	22,074	33,339	16,523	4,111	100.0	0.0	2.2	28.4	42.9	21.3	5.3
	사별	240,498	0	559	12,506	46,214	75,841	105,378	100.0	0.0	0.2	5.2	19.2	31.5	43.8
	미상	2	0	0	0	0	0	0	100.0	0.0	0.0	0.0	0.0	0.0	0.0
2010년	계	3,504,297	11,815	345,886	725,678	843,730	776,080	801,108	100.0	0.3	9.9	20.7	24.1	22.1	22.9
	유배우	2,220,807	79	40,958	437,890	632,485	587,075	522,320	100.0	0.0	1.8	19.7	28.5	26.4	23.5
	미혼	704,663	11,726	303,498	257,608	91,601	30,005	10,225	100.0	1.7	43.1	36.6	13.0	4.3	1.5
	이혼	260,789	10	1,305	27,505	97,662	93,352	40,955	100.0	0.0	0.5	10.5	37.4	35.8	15.7
	사별	318,038	0	125	2,675	21,982	65,648	227,608	100.0	0.0	0.0	0.8	6.9	20.6	71.6
	2013년 ^e (B)	계	3,567,727	15,857	335,911	682,393	810,817	830,598	892,151	100.0	0.4	9.4	19.1	22.7	23.3
유배우	2,196,226	106	36,912	393,756	581,329	609,795	574,328	100.0	0.0	1.7	17.9	26.5	27.8	26.2	
미혼	745,316	15,732	297,070	262,770	116,224	40,577	12,943	100.0	2.1	39.9	35.3	15.6	5.4	1.7	
이혼	303,378	15	1,869	24,322	97,563	120,483	59,126	100.0	0.0	0.6	8.0	32.2	39.7	19.5	
사별	322,807	4	60	1,545	15,701	59,743	245,754	100.0	0.0	0.0	0.5	4.9	18.5	76.1	
2030년 ^e (C)	계	4,042,164	13,929	276,613	518,334	619,322	817,943	1,796,023	100.0	0.3	6.8	12.8	15.3	20.2	44.4
	유배우	2,175,592	48	18,375	298,421	383,026	462,335	1,013,387	100.0	0.0	0.8	13.7	17.6	21.3	46.6
	미혼	962,037	13,866	257,015	202,295	175,952	193,893	119,016	100.0	1.4	26.7	21.0	18.3	20.2	12.4
	이혼	568,006	8	1,158	17,240	57,796	146,063	345,741	100.0	0.0	0.2	3.0	10.2	25.7	60.9
	사별	336,529	7	65	378	2,548	15,652	317,879	100.0	0.0	0.0	0.1	0.8	4.7	94.5
	A, B 증감현황 B-A (증감율)	계	601,933 (20.3)	5,136 (47.9)	-62,726 (-15.7)	-216,215 (-24.1)	43,031 (5.6)	277,486 (50.2)	555,226 (164.8)		0.1	-4.0	-11.2	-3.2	4.6
유배우		-77,001 (-3.4)	-347 (-76.6)	-122,871 (-76.9)	-365,216 (-48.1)	-89,420 (-13.3)	152,726 (33.4)	348,130 (153.9)		0.0	-5.3	-15.5	-3.0	7.7	16.2
미혼		370,969 (99.1)	5,464 (53.2)	60,448 (25.5)	157,714 (150.1)	98,740 (564.7)	36,898 (1,002.9)	11,705 (945.5)		-0.6	-23.4	7.2	10.9	4.5	1.4
이혼		225,658 (290.3)	15	196 (11.7)	2,248 (10.2)	64,224 (192.6)	103,960 (629.2)	55,015 (1,338.2)		0.0	-1.5	-20.4	-10.7	18.5	14.2
사별		82,309 (34.2)	4	-499 (-89.3)	-10,961 (-87.6)	-30,513 (-66.0)	-16,098 (-21.2)	140,376 (133.2)		0.0	-0.2	-4.7	-14.4	-13.0	32.3
B, C 증감현황 C-B (증감율)		계	474,437 (13.3)	-1,928 (-12.2)	-59,298 (-17.7)	-164,059 (-24.0)	-191,495 (-23.6)	-12,655 (-1.5)	903,872 (101.3)		-0.1	-2.6	-6.3	-7.4	-3.0
	유배우	-20,634 (-0.9)	-58 (-54.7)	-18,537 (-50.2)	-95,335 (-24.2)	-198,303 (-34.1)	-147,460 (-24.2)	439,059 (76.4)		0.0	-0.8	-4.2	-8.9	-6.5	20.4
	미혼	216,721 (29.1)	-1,866 (-11.9)	-40,055 (-13.5)	-60,475 (-23.0)	59,728 (51.4)	153,316 (377.8)	106,073 (819.5)		-0.7	-13.1	-14.2	2.7	14.7	10.6
	이혼	264,628 (87.2)	-7 (-46.7)	-711 (-38.0)	-7,082 (-29.1)	-39,767 (-40.8)	25,580 (21.2)	286,615 (484.8)		0.0	-0.4	-5.0	-22.0	-14.0	41.4
	사별	13,722 (4.3)	3 (75.0)	5 (8.3)	-1,167 (-75.5)	-13,153 (-83.8)	-44,091 (-73.8)	72,125 (29.3)		0.0	0.0	-0.4	-4.1	-13.9	18.3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년, 2010년」, 「장래가구추계 2013년, 2030년」, 국가통계포털(KOSIS), e는 추정치임.
 - 1995년 유배우에서 연령상태미상 3, 유배우 및 연령상태미상 2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